2019. 7. 9 (화) 언론보도

KBS

2019년 07월 09일 (화)
종합

'DMZ를 세계유산으로'...경기도, 12일 연천서 포럼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주민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포럼은 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의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 대표가 사례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유일 DMZ 내 마을인 파주 대성동 주민대표, 통일촌 주민대표, 해마루촌 주민대표, 연천 횡산리 주민대표, 삼곶리 주민대표 등이 사례발표자로 나섭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DMZ의 보존 관리와 세계유산 남북 공동추진을 정부 정책 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등 강원도와 함께 DMZ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KBS

2019년 07월 09일 (화)
종합

경기도 'DMZ 청소년 탐험대' 행사 개최...참가자 모집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김포·파주·연천 등 경기 서북부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DMZ 청소년 탐험대'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DMZ 청소년 탐험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 DMZ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로 중학생 40명을 모집해 진행합니다.

행사는 4차례로 나눠 현장탐방과 연계한 모둠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1회차는 20일 파주에서, 2회차는 27일 연천에서, 3회차는 다음 달 3일 김포에서 각각 개최되고 마지막 4회차는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다음 달 8~10일 2박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생태 탐방로 자전거 투어, 황포돛배 체험, 김포 대명항 평화누리길 도보 탐방, 파주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방문 등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오는 12일까지 'DMZ 즐겨찾기 홈페이지'(dmz.ggtou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6만5천원입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02-3274-9319)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OBSNEWS

2019년 07월 09일 (화)
종합

경기도, 12일 DMZ 세계유산 등재 위한 포럼 열어

OBS경인TV|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주민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의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 대표가 사례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DMZ의 보존 관리와 세계유산 남북 공동추진을 정부 정책 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등 강원도와 함께 DMZ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

OBS경인TV webmaster@obs.co.kr

99.9 경기방송

2019년 07월 09일 (화)
종합

경기도 'DMZ 청소년 탐험대' 행사 개최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 DMZ의 가치 체험..중학생 40명 모집

[KFM 경기방송 = 최일 기자]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김포·파주·연천 등 경기 서북부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DMZ 청소년 탐험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DMZ 청소년 탐험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 DMZ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로 중학생 40명을 모집해 진행합니다.

행사는 4차례로 나눠 현장탐방과 연계한 모둠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1회차는 20일 파주에서, 2회차는 27일 연천에서, 3회차는 다음 달 3일 김포에서 각각 개최되고 마지막 4회차는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다음 달 8~10일 2박 3일간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생태 탐방로 자전거 투어, 황포돛배 체험, 김포 대명항 평화누리길 도보 탐방, 파주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방문 등의 기회를 갖습니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 김정수 통일교육원 교수, 심용환 작가 등 전문가들로부터 DMZ의 역사, 평화와 통일의 의미 등에 대한 특강도 듣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오는 12일까지 'DMZ 즐겨찾기 홈페이지'(dmz.ggtou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6만5천원입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02-3274-9319)로 문의하면 됩니다.

99.9 경기방송
2019년 07월 09일 (화)
종합

경기도,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포럼 개최

12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서
[KFM 경기방송 = 최일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주민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의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 대표가 사례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유일 DMZ 내 마을인 파주 대성동 주민대표, 통일촌 주민대표, 해마루촌 주민대표, 연천 횡산리 주민대표, 삼곶리 주민대표 등이 사례발표자로 나섭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DMZ의 보존 관리와 세계유산 남북 공동추진을 정부 정책 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등 강원도와 함께 DMZ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2019년 07월 09일 (화)
종합 04면

DMZ 세계유산 등재나선 道 '공감대확산 포럼'

12일 지자체·전문가·주민등 참여
연천서 '보존·활용' 주제 토의 예정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오는 12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강당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제로 DMZ 세계유산 등재기반 구축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파주시, 연천군 관계자와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전문가, 민통선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의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적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 기조강연 이후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대표가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비무장지대(DMZ)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DMZ내 파주시 구 장단면사무소 모습. /경기도 제공

사례발표자는 파주시 접경지역에서는 ▲김동구 대성동 주민대표 ▲이완배 통일촌 대표 ▲김경숙 해마루촌 주민대표 ▲공지예 장단콩 초콜릿생산업체 운영자가, 연천군 대표로는 ▲김경도 횡산리 주민대표(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이사) ▲이광길 삼곶리 주민대표(삼곶리 두루미 그린빌리지 대표) ▲박영관 나룻배마을 주민대표 ▲박종근 연천비무장지대(DMZ) 보존회 회원이 참가한다.

DMZ 세계유산 등재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20세기 국제이데올로기 전쟁의 상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최근 평화의 공간으로 부각되는 DMZ를 전 세계 인류가 기억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조선왕릉(40기 중 31기) 등 3개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이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